

“민주주의 복원 없는 정권교체는 또 다른 실패”

‘이재명 대세론’ 비판·검증 무력화
‘국가 정상화’ 위한 정치개혁 시급
李, 통합 리더십 국민 검증 받아야
“헌법 개정·권력구조 개편 병행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9일과 20일 열린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어대명(아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도가 고착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독주체제가 당내 민주주의와 본선 경쟁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와 탄핵이라는 헌정 위기에서 시작된 만큼, 차기 정부는 정치 복원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경선에서 권리당원 6만 3460명 중 88.16%, 전국대의원 1270명 투표에서 87.3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튿날 치러진 영남권 경선 역시 득표율 91% 압승을 거뒀다. 김동연·김경수를 포함한 세 후보 중 유일하게 오차범위 밖 독주를 기록, 향후 호남·수도권 경선에서도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재명 대세론’이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고착화된 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강한 팬덤과 높은 인지도가 경선 경쟁을 무력화하고, 비판과 검증을 억제하는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계엄권 남용, 사법 왜곡 등 초헌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독주와 대안 부재는 결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보당·정의당 등 제3 진보정당들이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칭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시민사회 협치, 권력구조 개편 등 다층적 정치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차후 정권이 민주주의 복원 없이 단순한 정권교체만을 진행한다면 ‘반쪽짜리 수권정당’으로서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균열과 팬덤정치, 무당층 확장성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이명을 요청한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지역	충청	영남	누적
득표수(표)	57057	66526	123583
득표율(%)	88.15	90.81	89.56

김경수			
지역	충청	영남	누적
득표수(표)	2790	4341	7131
득표율(%)	4.31	5.93	5.17

김동연			
지역	충청	영남	누적
득표수(표)	4883	2388	7271
득표율(%)	7.54	3.26	5.27

“‘어대명’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굳어졌다. 다만 너무 이른 시기에 프레임이 굳어진 점은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내부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당층 지지세가 여전히 약한데다, 팬덤 중심의 정치문화가 중도층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거론되는 ‘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식 밖 언행 하나로 언제든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며 “이후보가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다지려면 맹목적 팬덤과 결별하고 통합 리더십 등을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독주에 따른 ‘갈등’을 방관하기 보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은 “이제 어대명은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프레임이 문제라면 그것은 이재명 외 대안이 없는 현 정치 구조 자체의 문제”라며 “압도적 대세론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취이자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잃어버린 민주·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단일 대오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3선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인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시대와 국민이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 경선이나 선거과정에서의 갈등은 접어두고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목표로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A홀에서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스

李, 영남권 경선 90%대

1차 충청권도 88.15% 압도적 1위
누적 투표율 64%…지난 대선보다 ↑
“정책비전·포용력·타후보 협력 중요”
26일 호남권 경선…27일 최종 확정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초반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대선 경선의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이 후보가 유효투표 7만3255표 가운데 6만6526표를 얻으며 90.81%의 득표율로, 4341표(5.93%)를 득표한 김경수 후보와 2388표(3.26%)를 확보한 김동연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압승했다.

이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6만4737표(91.10%)를 얻었으며, 김경수 후보는 4020표(5.66%), 김동연 후보는 2308표(3.25%)에 머물렀다. 전국대의원 투표에서도 이 후보는 1789표(81.69%)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으며, 김경수 후보는 321표(14.66%), 김동연 후보가 80표(3.65%)에 그쳤다.

이 후보는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도 88.15%(5만7057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 이를 연속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당내 공고한 ‘대세론’을 확인했다. 이튿날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 89.56%, 김동연 후보 5.27%, 김경수 후보 5.17%로 집계됐다.

경선 투표율은 영남권 70.88%, 충청권 57.87%로, 누적 투표율은 64.11%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 치러졌던 같은 지역 대선 경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로 당내 일각에서는 ‘어대명’ 구도로 인해 이번 경선이 ‘하나마나한 경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는 의견도 나온다. ➔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에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및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정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산108번지
2. 분묘기수 : 2기, 무연2기
3. 개정사유 : 재산권행사,토지활용
4. 개정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정
5. 안치장소 : 없음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개월
7. 안치기간 : 없음
8. 신고처 : 이 방 자(010-3643-6515)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치릿길 31-7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정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드론타임

DRONE

TIME

고화질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동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은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감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친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